

續藏

地域文化・地域人情・地域情報

靈嶺

1983年
12月

통권제23호
(전주문화원화)

特輯 / 全北人을 키우는 全北人

- 放談: 진행·張明洙/宋榮相·李奉燮·李鎬堉·全榮來
- 執筆: 金南坤·尹大作·文致相



* 故鄉을 생각한다

朱 玉 嬾

• 全北 禮讚論

金 權 瑛

* 名士의 廣場

李 熙 鳳

* 꿈 트

崔 基 仁

* 時論

李	址	烈
金	斗	永
林	秉	燦
趙	燦	伯

□ 全北地方 文化暢達을 위한 綜合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합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편집후기

○...국내외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 우리
들의 의지와 화합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왔음
은 힘겨웠으나 선진조국의 창조를 위해서는 더
욱 노력해야 되겠다.

○...노령 편집진과 문화원의 이사진들이 힘을 합해 분발하느로서 올해
는 많은 특집과 사업을 했다. 이러한 노력은 모두가 전북개발을 위한
밀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張>

○...노령의 편집진과 전주문화원의 이사진에 참여하라 직장인으로서
성실하라 사실 시를 쓰고 싶어도 시를 쓰지 못했고 또 변변한 수필 한편
쓰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서나마 청소년시절의 추억을 더듬다가 고향
을 생각한다는 주옥연 여사의 글을 얻어낸 것이 우습기도 하고 가장 재
미있었던 일이라고 생각된다. 나이 50을 바라보고 있는 처지에서 반가운
글을 읽게 되었고 또 우리고장에서 만들어 내는 잡지에 고향을 떠난 명
사의 글을 실게 되었음은 참말로 흐뭇할 뿐이다.

○...문화원도 관에서 빌려준 사무실을 떠나 민간단체로서의 전세방을
얻어 살림을 차렸으니 이제 사무실전세값 걱정이 하나 더 늘긴 늘었으나
앞으로 자립해 나가는데 무엇인가 계기가 되어야겠다. 문화원과 노령은
로서 바쁜 한해였다. <宋>

○...83년 신년호를 제작하느라 원고 수집이다, 광고확보다, 동분서주
하던때가 엇그제 같은데 허무하게 1년을 보낸것 같다. 주위에서 붙여준
「원고거지」라는 꼬리표를 달고 핑크는 대 필자를 찾아나서는 백의종군(?)
속에 계절의 탈바꿈도 잊어버렸다. 1984년에도 독자여러분의 성원을 기
대하며 통권 23호까지 수고해 주신 집필자 여러분의 건승을 빈다. <曹>

蘆

嶺

1983年 12月

<通卷 第23號>

1983年 12月 15日 印刷 / 1983年 12月 19日 發行

《非 賣 品》

發行人・金 光 鎬
編輯人・張 明 洙
(「蘆嶺」編輯委員會)

印刷人・咸 清
文公部 登錄番號・바-962號 登錄日字・1981年 8月 10日

發行所・社團全州文化院
法人

全州市 慶園洞 1街 104~5 ☎ ⑥ 7500

印刷所・鮮明印刷社 ☎ ②0030・②2878

■ 本誌는 韓國圖書雜誌 倫理委員會의 雜誌倫理 實踐要綱을 준수한다.

1983年 12月(通卷 第23號) 目次

- 8 卷頭 隨想 / 인재는 키워진다張明洙
10 送年辭 / 발전적인 사회의 밑거름으로金光鎬

* 特 輯 / 全北人을 키우는 全北人

- 12 放談 / 進 行 · 張明洙
參席者 · 宋榮相 · 李奉燮 · 李鎬培 · 全榮來
18 집필 / 〈獎學制度〉
優와 貧을 돕는 巨木행진金南坤
22 " / 〈技藝人 육성방안〉
매스 · 미디어에서 養成의 體系化를尹大作
26 " / 〈文化 · 藝術人 육성방안〉
선배들이 후배위한 機構만들어야文致相

- 44 * 名土의 廣場 / 湖南의 古籍李熙鳳
46 * 故鄉을 생각한다 / 고향사투리만 들어도 반가워...주옥연
50 * 全北禮讚論 / 湖南平野처럼 理解心도 넓어金權瑛
54 * 李鎬培 칼럼 / 約 束李鎬培
62 * 醫境 / 低 血 庄金然中

* 時 論 *

- 30 協同과 公德心이 선진조국의 礎石李址烈
33 植物이름을 우리말로 짓는 길金斗永
37 愛鄉으로 農工併進의 意志개발林秉燦
41 快適한 住居環境과 향토발전趙燦伯

64	친절 선진국	姜貴童
65	그러면 나는	김대자
66	간직하고 싶은 것들	마인숙
68	博 士	신용진
69	농산물 생산비 是非	李相夏
71	청 첩 장	全永煥
72	恩 豚	趙淳彩

* 詩

58	잔디의 生命	宋東均
59	가 을 에	金年均
60	달	朴允基
61	눈 물	李承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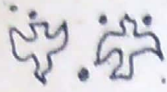
* 主題있는 散文

56	우리말 우리글/KAL의 표기	김만곤
57	좋은 글귀 풀이/兄弟投金	柳豐淵

* 連 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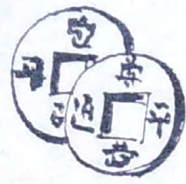
74	人生을 反芻하며/나의 文學 60年⑫	金海剛
78	世界 8個國 巡訪紀⑧/旅程 12萬里	柳鳳永
82	全北의 빛난 얼/小癡의 金山寺圖	趙炳喜
84	全北映畵 裏面史⑮/興行 이야기	卓 光
88	全北人物列傳⑳/판소리 名唱 權三得	宋榮相

92	* 공 트/傲 氣	崔基仁
96	편집후기	



기도 한다. 그렇다고 딸아이에게 구차스럽게 변명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제는 뭘 수 없는 칭호이기 때문에 책상머리에 앉아 열심히 연구하는 자세라도 취해야 딸아이의 실망을 덜어 주는 길이 아닌가 하고 오늘도 휴일인데도 책상에 앉아 책과 열심히 싸워 본다.

농산물 생산비 是非



李 相 夏

〈전북농촌진흥원

지도과장〉

추곡수매 가격결정할 때마다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시하는 생산비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그 산출 근거를 가지고 언쟁이 벌어지곤 한다.

농산물은 일정한 설계에 의해서 원료를 투입하면 미리 예정했던 생산품이나 오는 공산품과는 그 생산 과정이 전혀 다르다.

같은 면적의 땅에 종자, 비료, 농약 그밖의 생산 요소들을 일정하게 투입하고 같은 설계에 의해서 농사를 지어도 농업 생산은 땅에 따라 다르고, 짓는 이에 따라 다르며, 해에 따라서도 크게 차이가 난다.

그것은 농업이 비과학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체를 다루기 때문이다. 같은 품종이라도 종자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 소질이 조금씩은 다르다.

마치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얼굴이나 성격이 같지 않듯이 종자도 조금씩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농사짓는 땅도 그렇다. 보기에는 같은 땅으로 보일지 몰라도 흙알의 크기가 다르고 조성 비율이 다르며 거름과 물을 간직하는 힘이 각기 다르다.

또 농사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기상 조건도 위치와 시기에 따라 받는 영향이 조금씩 다르다.

일기 예보에 지방별 기온하고 농업에
서 쓰이는 기상은 그 개념이 다르다.

지온, 습도, 햇빛받는 시간 등 기상요
소가 각 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기
때문에 국지기상, 미세기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농사짓는 이의
경험과 기술수준도 각기 다르며 농사에
쏟는 정성 또한 다르다.

이렇게 많은 변수가 작용하는 것이 농
업이기 때문에 농사짓는 이들은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거둘 때까지 관찰하고 연
구하며, 작물과 이야기를 주고 받을 정
도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부모의 애정과
정성 없이는 한 이삭의 벼알, 사과 한
개, 돼지 새끼 한 마리 훌륭하게 길러낼
수 없는 것이다.

밤을 세우며 돼지 새끼를 받는 일, 밤
새 물을 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지
고 가꾸는 일들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걱정하고 돌아보며 쏟는 정
성을 어떻게 계산하여 비용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인가!

화가가 그림 속에 자기의 모든 것을

그러 넣고, 소설가가 글 속에 자기의 열
을 심어 넣듯이 농사짓는 이들도 기르는
식물과 동물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넣는다.

그래서 농산물은 생산품이라기 보다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유명한 그림의 값을 정할 때, 그 그림
을 그리는데 쓰여진 물감 등 재료비와
소요된 시간을 돈으로 계산하여 생산원
가를 계산한다면 모두들 무식한 사람이
라고 할 것이다.

매일 세 끼씩 먹어야 하는 식료품이
돈을 주면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해서 고
무신이나 기차표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농사짓는 이의 정성과 애정과 땀이 담
겨져 있고 수천 수만의 변수 속에서 만
들어진 예술품이라고 생각한다면 농산물
생산비 시비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밥상을 받을 때마다 위대한 예술품 앞
에서 있는 엄숙함을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것이다.